

붙임 1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부 내용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 11. 19. ~ 2021. 12. 6.
- 조사대상 : 만 15~49세 여성 8,500명 대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인공임신중절 실태 및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 발주기관 : 보건복지부

< 기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비교 >

구 분	'11년 실태조사	'18년 실태조사	'21년 실태조사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방법	만 15~44세 여성 4,000명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0,000명 온라인 조사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1.55%p	±1.0%p	±1.1%p

2. 주요 조사 결과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특수성 및 코로나19 상황, 이전 조사와의 집단 유사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 결과에서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조사의 대상인 만 15~49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고, 2018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연령을 만 15~44세 기준으로 한 경우는 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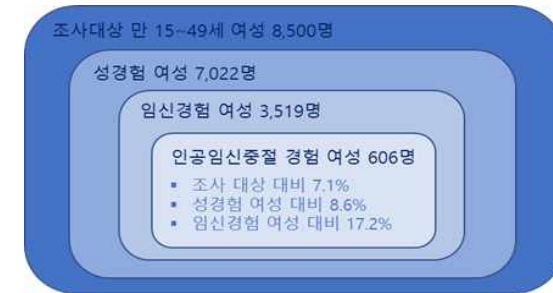
- 조사시점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만 15~49세 조사 완료 여성 8,500명 중 7.1%(606명)이며 성경험 여성(7,022명) 중에서는 8.6%, 임신경험 여성(3,519명) 중에서는 17.2%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조사 참여 여성 만 15~44세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365명)은 5.2%이며 성경험 여성 중에서는 6.6%, 임신경험 여성 중에서는 15.5%로 나타나 2018 조사 결과보다 비율이 낮아짐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조사시기	구 분 연령기준	조사 대상 대비	성경험 여성 대비	임신경험 여성 대비
2021년	만 15~49세	7.1	8.6	17.2
	만 15~44세	5.2	6.6	15.5
2018년	만 15~44세	7.6	10.3	19.9

- * (21년 조사 만 15~49세) 조사대상 8,500명, 성경험 여성 7,022명, 임신경험 여성 3,519명
- * (21년 조사 만 15~44세) 조사대상 6,959명, 성경험 여성 5,530명, 임신경험 여성 2,362명



- 만 15~49세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03회(±0.24)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 1인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04회(±0.27)로 2018년 조사 결과(평균 1.43회(±0.74))와 비교 시 평균 횟수가 감소함

□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¹⁾

- 조사 시점에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만 15~44세) 5,530명의 총 임신 경험은 4,700회이며, 이 중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379건으로 나타남
 - (만 15~49세 기준) 조사 시점에 성경험이 있는 여성 7,022명의 총 임신 경험은 7,401회이며, 이 중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624건

1)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만 15~44세 기준을 우선 적용함.

○ 2020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천 명당 3.3건

*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 = 23/6,959 * 1000 = 3.3

- (15~49세 기준)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천 명당 2.8건

○ 2020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약 32,063건 (29,864~32,063건)

<만 15~44세>

-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 $23/6,959 \times 1000 =$ 천 명당 3.3건
- 2020년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 (전체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23/6,959 \times [\text{만 15~44세 여성 모집단 수}(2020\text{년 연앙인구})] = 32,063\text{건}$$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sum_{n=15}^{44} (\text{인공임신중절률}(n) \times n\text{세 } 2020\text{년 연앙인구}) = 29,864\text{건}$$
 - (5세 단위 연령 집단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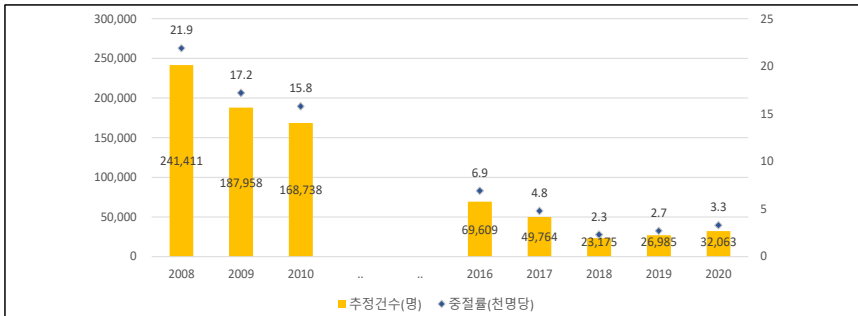
$$\sum_{n=1}^6 (\text{인공임신중절률}(n\text{집단}) \times \text{집단별 } 2020\text{년 연앙인구}) = 32,014\text{건}$$

- (만 15~49세 기준) 2020년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약 33,479건

○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추이) 다음 그림과 같이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후 2019년과 2020년은 낮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

(단위: 건, 천 명당 건)



자료: 1) 2008~2010년 수치: 손명세 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 2016~2017년 수치: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018~2020년 수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인공임신중절 경험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 (당시 연령)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606명)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만 15~49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5세(±5.99)임

- (만 15~44세 기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365명)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만 27.0세(±5.54)로, 2018년 결과와 비교 시(평균 연령 만 28.4세), 평균 연령이 약간 낮아짐

○ (당시 혼인상태)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임

- (만 15~44세 기준)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로 2018년 결과의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와 비교해,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가 미혼이었던 비율이 높아짐

○ (당시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당시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은 경우가 46.2%였고,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으로 피임한 경우가 41.3%, 콘돔이나 자궁내 장치 등으로 피임한 경우는 10.2%, 피임하지 않고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는 1.8%였음

- (만 15~44세 기준)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은 경우가 48.2%,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으로 피임한 경우 36.4%, 콘돔이나 자궁내 장치 등으로 피임한 경우 13.2%, 응급피임약 복용한 경우 2.2%로 나타나,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피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2018년: 질외사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 47.1%,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음 40.2%, 질외사정, 월경주기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임 12.7%)

○ (당시 피임 미실천 이유, 복수응답) 피임하지 않은 여성(응급(사후)피임약 복용 포함)의 피임 미실천 이유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는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20.6%,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15.1%, '임신을 원해서' 13.4% 등의 순이었음

○ **(당시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한 비율은 96.5%이고,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50.3%,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했다’ 27.5%, ‘아이를 낳자고 했다’ 18.5% 등으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한 비율은 96.7%이고,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49.6%,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했다’ 28.3%, ‘아이를 낳자고 했다’ 17.6%로 나타나,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파트너가 아이를 낳자고 한 응답 비율(34.0%)은 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응답(20.2%)과 여성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는 응답 비율(43.0%)은 증가하였음

○ **(인공임신중절 방법)** 전체 인공임신중절경험자(606명) 중 수술만 받은 경우는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만 사용한 경우 2.3%,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 5.4%)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수술만 받은 경우는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3%(약물만 사용한 경우 2.7%,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 5.5%)이며,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수술만 받은 경우(90.2%)가 약간 증가하였고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7.0%)는 약간 감소하였음

- 약물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중복응답)로 ‘수술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부작용이 덜할 것 같아서)’ 36.2%, ‘비용부담이 적어서(3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술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중복응답)로 ‘수술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아서’ 47.1%,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34.3%, ‘약물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부작용이 덜할 것 같아서)’ 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시기)** 약물 사용의 경우 평균 6.11주, 수술의 경우 평균 6.74주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약물 사용은 평균 6.13주, 수술은 평균 6.80주로,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인공임신중절 시기가 약간 늦어짐(2018년 결과: 약물 사용 5.9주, 수술 6.4주)

○ **(인공임신중절 지역)**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9.8%, 주거지와 가까운 타·시도 19.3%, 주거지와 먼 타·시도 10.1%, 국외 0.8% 수준

- 인공임신중절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본 기관은 평균 1.54개소이며 이 중 직접 방문한 곳은 1.52개소임

○ **(인공임신중절 비용)** 약물 사용의 경우 10만 원 미만 36.2%, 10~20만 원 미만 21.3%, 50만 원 이상 14.9% 등의 순이었으며, 수술의 경우 30~50만 원 미만 36.1%, 50~100만 원 미만 30.1%, 잘 모르겠음 15.5% 등이었음

- (만 15~44세 기준) 약물 사용의 경우 10만 원 미만 30.0%, 10~20만 원 미만 20.0%, 50만 원 이상 20.0% 순으로 약물의 경우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확연히 비용이 증가하였고(2018년 결과: 10만 원 미만 36.3%, 50만 원 이상 9.6%), 수술의 경우 30~50만 원 미만 36.1%, 50~100만 원 미만 35.5% 등의 순으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약간 증가하였음(2018년 결과: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

○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 정보)** 인공임신중절 당시 ‘인공임신중절에 드는 비용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으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인공임신중절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정보 필요도도 높게 나타남. 반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정보’에 대한 필요도는 낮음

- **(당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에 대한 주된 습득 경로(2가지 복수응답)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46.9%,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40.3%로 가장 많았고,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34.0% 순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복수응답)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5.5%, ‘경제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4.0%, ‘자녀계획 때

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29.0%,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2021년(만 15~49세)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다만, 동일 연령(만 15~44세) 집단으로 비교할 때 2021년 결과의 경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응답('21년 41.9%, '18년 33.4%)과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21년 39.7%, '18년 32.9%),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21년 24.1%, '18년 17.8%) 응답이 2018년 결과에 비해 많아졌고, 자녀 계획 때문('21년 22.5%, '18년 31.2%)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줄었음

○ (사후관리) 인공임신중절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0점~10점 중 5.31점으로 보통 정도 수준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 인공임신중절 이후 7.1%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8.8%만 치료를 받았고, 55.8%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16.9%만 치료를 받음
- (만 15~44세 기준) 신체적 증상 경험은 7.1%, 정신적 증상 경험은 59.5%로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신체적 증상 경험(8.5%)은 근소하게 감소하고 정신적 증상 경험(54.6%)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치료한 비율이 2021년 결과에서 약간씩 증가함

* 신체적 증상: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 정신적 증상: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

○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7%)',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6%)',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12.1%)' 순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고려율과 고려 경험(인공임신중절 경험 없음)

○ 임신경험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비율은 임신경험 여성(3,519명) 중 12.7%(447명)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12.7%가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였음

- (만 15~44세 기준) 임신경험 여성의 15.5%가 인공임신중절 경험, 12.4%가 인공임신중절 고려해,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임신경험 있는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 여성은 감소하고 인공임신중절 고려 여성은 약간 증가함(2018년 결과: 임신경험 여성의 19.9% 인공임신중절 경험, 10.1% 인공임신중절 고려)

○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자녀계획 때문에'가 46.8%로 가장 높고,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5.1%,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2.4% 등으로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자녀계획 때문에'가 48.1%로 가장 높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6.9%,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6.2% 순으로 나타남.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고민의 세 가지 주요 요인은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46.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44.0%,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42.0%로 동일하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자녀계획으로 인해 고민했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2가지 복수응답),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가 63.3%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도 41.8%로 높게 나타남

- (만 15~44세 기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가 65.9%,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는 39.9%로 2018년 조사 결과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동일하게 나타남(2018년 결과: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71.5%,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39.8%)

□ 피임 실천 및 행태

* 평소 피임 실천은 현재 파트너 또는 가장 최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응답임

○ (평소 피임 실천) 성관계 시 본인과 파트너가 피임을 항상 하는 경우는

41.5%, 대부분 하는 경우는 32.0%로 73.5%가 대체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

-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주된 획득 경로, 복수응답)** 인터넷(포털게시물, 유튜브 등)을 통해 피임 정보를 주로 획득한 경우가 69.3%로 가장 많았고, 학교(교육) 29.5% 친구나 선후배 등의 지인이 27.8%, 의료기관(병의원, 산부인과 등)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소 피임 실천 방법, 복수응답)** 콘돔이 7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질외사정 38.4%, 월경주기법 20.9%, 경구피임약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복수응답)** 미혼의 경우,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51.8%로 가장 높았고,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29.8%,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27.0%,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26.8%로 나타남

* 본인과 파트너가 피임을 항상 하거나 대체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응답임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및 낙태죄 개정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0%,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32.5%, '전혀 알지 못한다' 7.4%로 60%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

-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책에 관한 견해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21.5% 등으로 나타남

○ **(상담 및 정보)**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은 97.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의료상담 이외에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5%의

응답자가,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의 경우 9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소 필요함 + 매우 필요함 응답 기준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상담 및 정보가 필요하다는 전체 응답(다소 필요함 + 매우 필요함) 비율은 비슷하나('21년 97.8%, '18년 97.5%), 2021년 결과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8년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함

3.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법적 환경 변화 이후의 조사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 및 변화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조사결과, 피임 실천과 인공임신중절 경험 과정 등에서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만 15~49세 여성의 피임 지식 및 정보 습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평소 피임 실천 행태에 있어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사용한 피임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을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이유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상담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료기관과 비용 관련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인공임신중절 방법과 전후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욕구가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국가의 역할 중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은 2018년 조사

㉔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2021년 조사				2018년 조사	
	만 15~49세		만 15~44세		만 15~44세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8,500)	100.0	(6,959)	100.0	(10,000)
지역						
대도시	45.7	(3,882)	46.1	(3,207)	47.1	(4,711)
중소도시	43.2	(3,672)	42.7	(2,973)	42.0	(4,203)
농어촌	11.1	(946)	11.2	(779)	10.9	(1,086)
현재 연령						
15~19세	10.2	(864)	12.4	(864)	14.8	(1,479)
20~24세	13.4	(1,135)	16.3	(1,135)	15.4	(1,544)
25~29세	14.1	(1,197)	17.2	(1,197)	14.1	(1,415)
30~34세	12.7	(1,081)	15.5	(1,081)	17.2	(1,719)
35~39세	15.4	(1,305)	18.8	(1,305)	18.1	(1,815)
40~44세	16.2	(1,377)	19.8	(1,377)	20.3	(2,028)
45~49세	18.1	(1,541)	-	-	-	-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146)	2.1	(146)	1.5	(147)
고졸 이하	15.9	(1,354)	14.9	(1,037)	16.9	(1,686)
대졸 이하	69.5	(5,906)	70.6	(4,915)	68.5	(6,848)
대학원 이상	12.9	(1,094)	12.4	(861)	13.2	(1,319)
현재 혼인상태						
미혼	48.4	(4,115)	57.0	(3,965)	52.9	(5,289)
법률혼	46.2	(3,926)	38.6	(2,686)	37.8	(3,781)
사실혼·동거	2.4	(202)	2.5	(174)	7.5	(749)
별거·이혼·사별	3.0	(257)	1.9	(134)	1.8	(181)
취업여부						
취업	56.0	(4,756)	55.0	(3,827)	55.3	(5,526)
비취업	44.0	(3,744)	45.0	(3,132)	44.7	(4,47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6	(476)	6.0	(417)	3.5	(350)
100~200만 원 미만	9.4	(795)	9.5	(659)	17.6	(1,762)
200~300만 원 미만	19.1	(1,622)	20.0	(1,390)	10.2	(1,016)
300~400만 원 미만	14.7	(1,247)	14.5	(1,012)	20.5	(2,052)
400~500만 원 미만	13.8	(1,172)	13.4	(934)	10.4	(1,042)
500~600만 원 미만	11.8	(1,007)	11.1	(769)	17.3	(1,734)
600~700만 원 미만	7.5	(639)	7.1	(493)	9.1	(908)
700만 원 이상	12.5	(1,064)	11.8	(820)	9.0	(895)
잘 모름	5.6	(478)	6.7	(465)	2.4	(241)
종교						
개신교	18.1	(1,537)	16.8	(1,170)	19.2	(1,921)
불교	10.1	(858)	9.3	(647)	10.4	(1,043)
원불교	0.2	(15)	0.2	(12)	0.1	(9)
천주교	8.0	(676)	7.3	(511)	8.2	(824)
무교	63.6	(5,404)	66.2	(4,610)	61.9	(6,191)
기타	0.1	(10)	0.1	(9)	0.1	(12)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㉕ 임신경험 및 임신 결과

(단위: 건수)

구 분	임신경험	임신결과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
전체	7,401	5,401	87	1,169	624
만 15~49세 (8,500명 기준)					
2021년	298	191	3	77	15
2020년	305	183	4	63	24
2019년	300	224	4	69	20
2018년	323	225	9	65	20
2017년 이전(2017년 포함)	6,175	4,578	67	895	545
만 15~44세 (6,959명 기준)					
전체	4,700	3,369	47	787	379
2021년	291	184	3	76	15
2020년	291	176	4	60	23
2019년	286	210	4	65	19
2018년	292	211	4	59	16
2017년 이전(2017년 포함)	3,540	2,588	32	527	306

주: 임신과 임신 결과가 같은 연도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연도의 임신경험과 해당 연도의 임신결과와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㉖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2021년(15~49세)		2021년(15~44세)		2018년(15~44세)	
	계	(명)	계	(명)	계	(명)
전체	100.0	(606)	100.0	(365)	100.0	(756)
당시 연령						
19세 이하	2.8	(17)	4.4	(16)	1.7	(13)
20~24세	25.4	(154)	31.8	(116)	27.8	(210)
25~29세	31.4	(190)	34.2	(125)	30.0	(227)
30~34세	24.3	(147)	18.6	(68)	22.8	(172)
35~39세	10.7	(65)	8.8	(32)	14.6	(110)
40~44세	4.8	(29)	2.2	(8)	3.1	(23)
45~49세	0.7	(4)	-	-	-	-
당시 혼인상태						
미혼	50.8	(308)	64.4	(235)	46.9	(355)
법률혼	39.9	(242)	26.8	(98)	37.9	(286)
사실혼·동거	7.9	(48)	8.2	(30)	13.0	(98)
별거·이혼·사별	1.3	(8)	0.5	(2)	2.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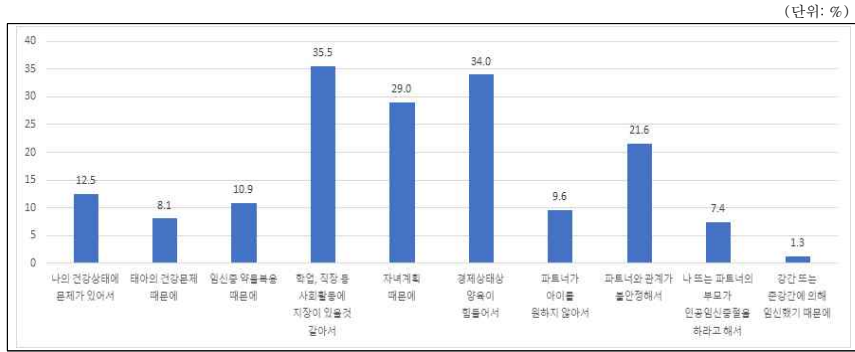
주: 1)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Ⅵ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만 15~49세)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명
2018년(15~44세)	9.1	11.3	-	33.4	31.2	32.9	11.7	17.8	6.5	0.9	5.1	(756)
2021년(15~44세)	9.6	7.1	7.9	41.9	22.5	39.7	11.2	24.1	10.4	1.6	-	(365)
2021년(15~49세)	12.5	8.1	10.9	35.5	29.0	34.0	9.6	21.6	7.4	1.3	-	(606)
당시 연령												
24세 이하	5.8	3.5	4.7	59.1	14.6	33.3	14.6	26.9	14.0	2.3	-	(171)
25~29세	9.5	6.8	13.7	32.6	23.2	35.3	6.8	28.4	7.9	2.1	-	(190)
30~34세	17.0	13.6	13.6	19.0	40.8	29.9	8.2	12.9	4.1	-	-	(147)
35세 이상	23.5	10.2	12.2	24.5	48.0	38.8	8.2	12.2	-	-	-	(98)
당시 혼인상태												
미혼	4.5	2.9	8.8	53.2	12.0	34.1	13.0	35.1	11.0	2.3	-	(308)
법률훈/별거이혼사별	22.0	15.2	12.4	16.8	48.8	33.6	4.8	5.6	2.4	0.4	-	(250)
사실혼·동거	14.6	4.2	16.7	18.8	35.4	35.4	12.5	18.8	10.4	-	-	(48)
인공임신중절 시기												
2018년 까지	11.8	7.8	10.9	35.8	29.4	32.7	9.3	21.6	7.8	1.5	-	(551)
2019년 이후	20.0	10.9	10.9	32.7	25.5	47.3	12.7	21.8	3.6	-	-	(55)

주: 1)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2) 인공임신중절(낙태) 이유 11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 ③ 임신 중 약물복용 때문에 (*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임)
- ④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 ⑤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 ⑥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 ⑧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혼외관계 등)
- ⑨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라고 해서
- ⑩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 ⑪ 기타 (2021년 조사에서 기타에 응답한 케이스는 없었음)

3) 반올림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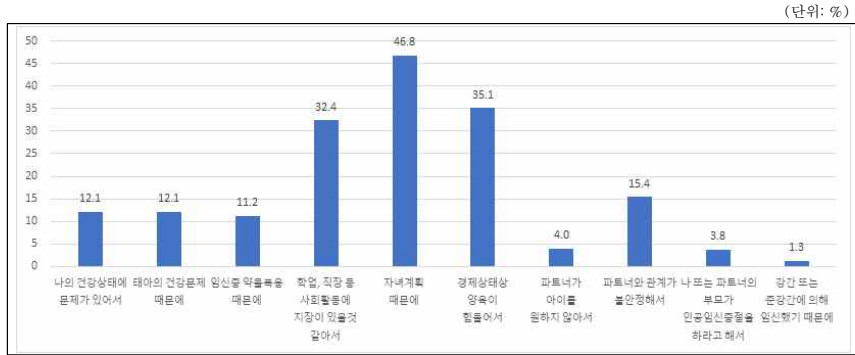
Ⅶ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구분	2021년 조사(만15~49세)		2021년 조사(만 15~44세)		2018년 조사(만 15~44세)	
	계	(명)	계	(명)	계	(명)
전체	100.0	(447)	100.0	(293)	100.0	(383)
당시 연령						
19세 이하	2.0	(9)	3.1	(9)	2.4	(9)
20~24세	18.6	(83)	19.8	(58)	18.1	(69)
25~29세	28.2	(126)	30.4	(89)	28.8	(110)
30~34세	28.4	(127)	29.0	(85)	31.9	(122)
35~39세	16.8	(75)	13.7	(40)	15.9	(61)
40~44세	5.4	(24)	4.1	(12)	2.8	(11)
45~49세	0.7	(3)	-	-	-	-
당시 혼인상태						
미혼	32.7	(146)	38.6	(113)	29.8	(114)
법률훈	55.5	(248)	49.8	(146)	56.4	(216)
사실혼·동거	10.3	(46)	9.9	(29)	11.1	(42)
별거·이혼·사별	1.6	(7)	1.7	(5)	2.7	(10)

주: 1) 전체 응답자는 임신경험자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자를 제외한 경우임.
 2)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3) 반올림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㉞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만 15-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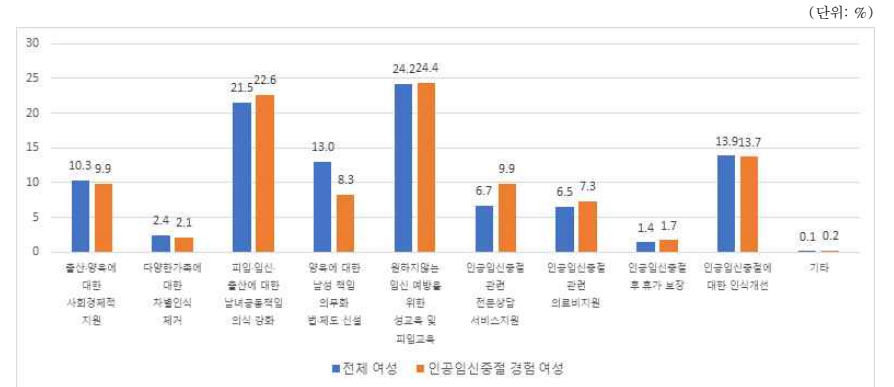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명
2018년(15~44세)	15.8	13.3	-	42.0	44.0	46.9	7.6	21.3	3.0	0.8	5.4	(383)
2021년(15~44세)	11.3	11.6	9.9	36.9	48.1	36.2	3.4	15.4	4.1	1.4	-	(293)
2021년(15~49세)	12.1	12.1	11.2	32.4	46.8	35.1	4.0	15.4	3.8	1.3	-	(447)
당시 연령												
24세 이하	10.9	6.5	6.5	44.6	27.2	34.8	10.9	20.7	9.8	2.2	-	(92)
25~29세	11.9	11.9	15.9	33.3	38.1	31.7	4.8	23.8	2.4	1.6	-	(126)
30~34세	11.0	15.7	13.4	29.9	56.7	33.9	0.8	11.0	1.6	0.8	-	(127)
35세 이상	14.7	12.7	6.9	23.5	62.7	41.2	1.0	5.9	2.9	1.0	-	(102)
당시 혼인상태												
미혼	8.9	6.2	3.4	51.4	30.8	30.1	8.2	29.5	4.8	2.7	-	(146)
법률훈/별거이혼사별	12.5	15.7	13.7	20.8	60.0	37.3	2.4	6.3	3.1	0.8	-	(255)
사실혼동거	19.6	10.9	21.7	37.0	23.9	39.1	-	21.7	4.3	-	-	(46)

주: 1)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2)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 11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 ③ 임신 중 약물복용 때문에 (*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임)
- ④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 ⑤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 ⑥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 ⑧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혼외관계 등)
- ⑨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려고 해서
- ⑩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 ⑪ 기타 (2021년 조사에서 기타에 응답한 케이스는 없었음)

3)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㉞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할 일(우선순위 1순위) (만 15-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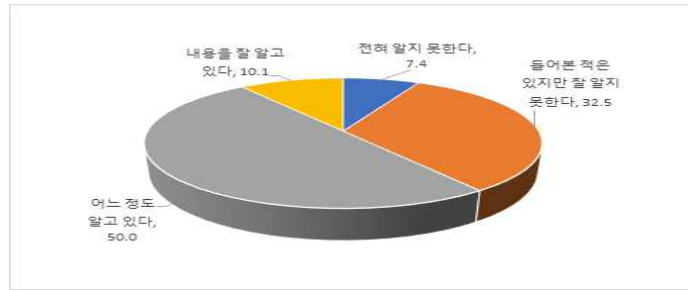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전체	10.3	2.4	21.5	13.0	24.2	6.7	6.5	1.4	13.9	0.1	100.0 (8,500)
여성 특성($\chi^2=279.95^{***}$)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9.9	2.1	22.6	8.3	24.4	9.9	7.3	1.7	13.7	0.2	100.0 (606)
인공임신중절 고려자(미경험)	13.9	2.7	19.5	11.0	24.8	8.9	5.6	1.6	12.1	-	100.0 (447)
임신경험자 (인공임신중절 미고려/미경험)	11.2	2.1	21.9	11.5	32.4	6.0	3.4	1.5	9.9	0.0	100.0 (2,466)
성경험 있으나 임신미경험자	9.2	2.5	21.9	13.9	21.0	7.0	7.6	1.2	15.7	0.1	100.0 (3,503)
성경험 미경험자	10.6	2.6	20.0	16.2	17.9	5.3	8.9	1.5	16.8	-	100.0 (1,478)

주: 1)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국가의 역할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인식 제거
- ③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 ④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 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 ⑥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 ⑦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 ⑧ 인공임신중절(낙태) 후 휴가 보장
- 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개선
- ⑩ 기타(낙태 합법화, 낙태 합법화 금지 등)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및 낙태죄 개정 요구에 대한 인지 정도 (만 15~49세)



(단위: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계	(명)
2021년(15~49세)	7.4	32.5	50.0	10.1	100.0	(8500)
지역(x ² =10.37)						
대도시	7.2	31.3	51.4	10.0	100.0	(3882)
중소도시	7.3	33.3	49.1	10.4	100.0	(3672)
농어촌	8.6	34.7	47.8	9.0	100.0	(946)
현재 연령(x ² =301.72***)						
19세 이하	5.4	23.7	56.4	14.5	100.0	(864)
20~29세	4.8	26.8	52.7	15.7	100.0	(2332)
30~39세	7.6	35.0	48.6	8.9	100.0	(2386)
40~49세	9.9	37.7	47.2	5.2	100.0	(2918)
교육수준(x ² =8.04)						
고졸 이하	7.9	34.3	47.3	10.5	100.0	(1500)
대졸 이하	7.1	32.0	50.9	9.9	100.0	(5906)
대학원 이상	8.1	32.9	48.6	10.3	100.0	(1094)
현재 혼인상태(x ² =195.25***)						
미혼	6.0	27.9	52.5	13.7	100.0	(4115)
법률혼	8.5	37.4	47.6	6.5	100.0	(3926)
사실혼·동거	8.9	32.7	48.0	10.4	100.0	(202)
별거·이혼·사별	11.7	33.1	49.0	6.2	100.0	(257)
취업여부(x ² =30.42***)						
취업	7.4	34.3	49.5	8.7	100.0	(4756)
비취업	7.3	30.3	50.6	11.8	100.0	(3744)
월평균 가구소득(x ² =45.65***)						
200만원 미만	7.7	36.5	45.8	10.0	100.0	(1271)
200~400만원 미만	7.8	33.4	49.5	9.3	100.0	(2869)
400~600만원 미만	7.7	32.8	50.1	9.5	100.0	(2179)
600만원 이상	6.7	28.8	53.8	10.7	100.0	(1703)
잘 모름	4.8	29.5	50.8	14.9	100.0	(478)
종교 유무(x ² =9.24*)						
있음	8.3	32.9	49.6	9.2	100.0	(3096)
없음	6.9	32.3	50.2	10.6	100.0	(5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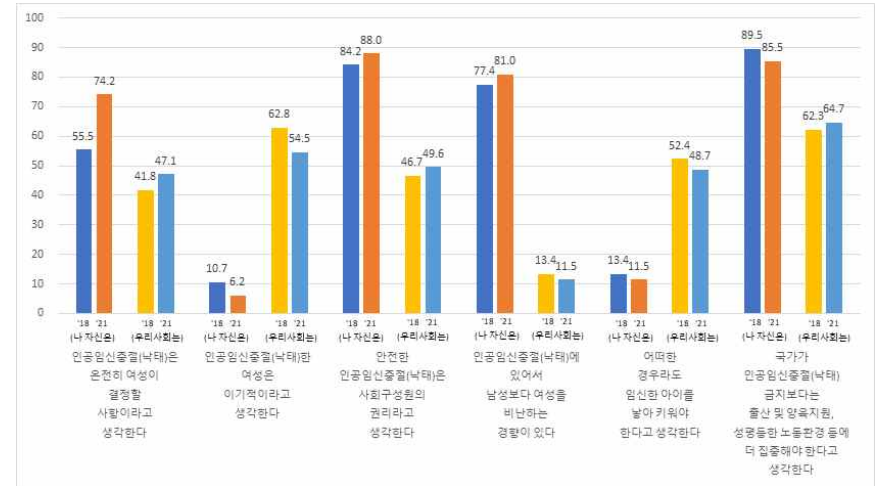
주: 1) *p<0.05, **p<0.01, ***p<0.001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의 인식

(단위: %)



주: 각 항목별 수치는 만 15~44세의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임.

(단위: %)

문항	나 자신은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1년 15~49세	13.3	15.7	40.2	30.8	16.4	36.4	32.4	14.8
	'21년 15~44세	11.1	14.7	40.3	33.9	16.1	36.8	31.6	15.5
	'18년 15~44세	20.8	23.7	32.0	23.5	20.7	37.5	29.2	12.6
(2)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21년 15~49세	56.2	37.1	5.6	1.1	25.4	22.6	32.5	19.5
	'21년 15~44세	58.7	35.1	5.2	1.0	25.4	20.1	33.0	21.5
	'18년 15~44세	47.5	41.9	9.1	1.6	16.6	20.6	41.7	21.1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사회구성원의 권이라고 생각한다	'21년 15~49세	4.1	9.6	46.8	39.5	12.2	37.1	33.9	16.7
	'21년 15~44세	3.5	8.6	45.2	42.8	12.7	37.6	32.2	17.4
	'18년 15~44세	3.9	11.9	47.3	36.9	15.5	37.8	32.8	13.9
(4)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21년 15~49세	9.2	9.7	32.6	48.5	49.9	37.0	10.8	2.3
	'21년 15~44세	9.4	9.6	30.4	50.6	53.3	35.2	9.5	2.0
	'18년 15~44세	11.9	10.7	32.4	45.0	46.7	39.8	11.3	2.1
(5)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 아이를 낳아 키우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년 15~49세	49.9	37.0	10.8	2.3	24.2	29.3	36.1	10.4
	'21년 15~44세	53.3	35.2	9.5	2.0	24.2	27.1	37.4	11.3
	'18년 15~44세	46.7	39.8	11.3	2.1	19.4	28.1	39.0	13.4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년 15~49세	3.5	10.5	30.5	55.4	6.9	26.9	37.1	29.1
	'21년 15~44세	3.6	10.9	29.3	56.2	7.3	28.0	36.7	28.0
	'18년 15~44세	2.9	7.7	28.1	61.4	8.3	29.4	33.6	28.7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㉔ 인공임신중절(낙태) 전후의 상담이나 정보의 필요성

(단위: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18년: 인공임신중절(낙태)술과 관련된 의료 상담)	‘21년 15~49세	0.6	1.6	32.4	65.4
	‘21년 15~44세	0.6	1.7	31.2	66.6
	‘18년 15~44세	0.5	1.9	38.9	58.6
(2)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18년: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의료적인 내용 이외의 심리, 정서적 상담)	‘21년 15~49세	0.6	2.0	28.5	69.0
	‘21년 15~44세	0.5	2.1	26.8	70.6
	‘18년 15~44세	0.5	1.8	31.1	66.6
(3)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18년: 출산, 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	‘21년 15~49세	0.6	2.4	27.6	69.4
	‘21년 15~44세	0.6	2.5	26.6	70.2
	‘18년 15~44세	0.6	2.7	31.0	65.7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2018년: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붙임 3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 문항별 결과 (15~49세)

※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문항의 보기 문항을 무작위(random)로 배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피임 지식 및 성경험 유무

A1. 귀하는 피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N=8,500)

- ① 잘 알고 있다 (52.5%)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5%)
③ 모른다 (1.0%)

A1-1. 다음의 피임방법 중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8,417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경구피임약(먹는 피임약) (94.0%)
② 콘돔(남성용) (94.5%)
③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14.2%)
④ 주사피임제(사야나) (10.7%)
⑤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라논 등) (21.6%)
⑥ 자궁 내 피임장치(IUD) [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75.4%)
⑦ 난관수술(절제 및 결찰수술) (48.0%)
⑧ 정관수술(절제 및 결찰수술) (83.6%)
⑨ 응급피임약 (70.6%)
⑩ 페미돔(여성용) (31.7%)
⑪ 질내삽입기구(페서리, 스폰지) (28.8%)
⑫ 기타 (0.1%)

※ ‘응급피임약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임방법이 불확실하거나 피임방법이 실패한 경우 성교 후 사용하는 응급피임제입니다.

A1-2.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얻는 곳(사람)을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N=8,417 / 복수응답, 2개)

- ① 병원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23.9%)
②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2.1%)
③ 잡지 및 책 (14.4%)
④ 인터넷 등 언론 매체 (69.3%)
⑤ 학교(교육) (29.5%)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8.0%)
⑦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친척 (3.8%)
⑧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 (27.8%)
⑨ 기타 (0.2%)

A2. 귀하께서는 성경험이 있으십니까? (N=8,500)

- ① 있다 (82.6%) ② 없다 (17.4%)

A2-1. 처음으로 성경험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N=7,022)

만 ____세 (평균: 22.6세, 최소값: 10세, 최대값: 49세, 표준편차: 4.32)

A2-2. 처음 성경험을 하기 전에 피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N=7,022)

- ① 전혀 몰랐다 (4.5%)
- ② 거의 몰랐다 (27.0%)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60.3%)
- ④ 잘 알고 있었다 (8.2%)

2. 피임 실천 및 행태

※ B1~B3-1 문항은 현재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또는 가장 최근의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B1. 귀하께서는 성관계 전 피임에 대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N=7,022)

- ① 내가 먼저 피임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54.1%)
- ② 파트너가 먼저 피임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18.8%)
- ③ 아무도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27.1%)

B2. 귀하와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는 성관계 시 피임을 하십니까? (N=7,022)

- ① 항상 한다 (41.5%)
- ② 대부분 하는 편이다 (32.0%)
- ③ 하지 않는 편이다 (18.7%)
- ④ 전혀 하지 않는다 (7.8%)

B2-1. [B2의 ①, ②번 응답자] 피임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다음 중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5,161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월경주기법 (20.9%)
- ② 질외사정 (38.4%)
- ③ 콘돔 (77.1%)
- ④ 경구피임약(먹는 피임약) (18.0%)
- ⑤ 살(질)정제 (0.5%)
- ⑥ 자궁 내 피임장치 (4.7%)
- ⑦ 피임 주사 (0.4%)
- ⑧ 응급피임약 (2.7%)
- ⑨ 난관수술(절제 및 결찰수술) (1.8%)
- ⑩ 정관수술(절제 및 결찰수술) (8.2%)
- ⑪ 기타 (0.1%)

B2-2. [B2의 ③, ④번 응답자]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1,861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임신을 원해서 (31.8%)
- ② 피임도구(콘돔 등)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33.7%)
- ③ 피임 시술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2.1%)
- ④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2.8%)
- ⑤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2.0%)
-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7.5%)
- ⑦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33.2%)
- ⑧ 피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해서 (7.6%)
- ⑨ 기타 (3.7%)

B3. 귀하는 성관계 중이나 후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N=7,022)

- ① 있다 (78.3%)
- ② 없다 (21.7%)

B3-1. 그 때, 임신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응급피임약을 복용하였습니까? (N=5,501)

- ①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했다 (16.1%)
- ②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복용하지 않았다 (53.0%)
- ③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응급피임약을 구하여 복용하였다 (26.0%)
- ④ 의사의 처방 없이 응급피임약을 구하여 복용하였다 (3.7%)
- ⑤ 기타 (1.3%)

B3-1-1.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복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N=2,914)

- ① 응급피임약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8.4%)
- ②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가면 누가 알게 될까봐 (3.5%)
- ③ 응급피임약 먹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3.5%)
- ④ 응급피임약이 건강에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17.1%)
- ⑤ 걱정은 되었지만, 실제로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51.2%)
- ⑥ 혹시 임신했다면 낳아야겠다고 생각해서 (16.3%)
- ⑦ 기타 (-)

3.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C1. 다음은 귀하의 임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횟수로 표기해 주십시오. (경험이 없는 경우, 0회로 응답)

- ※ 사산: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
- ※ 자연유산: 임신 20주 이전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
-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약)이나 유사약 복용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해당
- ※ 응급피임약 복용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해당되지 않음
- ※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임신 횟수는 1회로 응답함

(단위: 건수)

구 분	임신 경험	임신 결과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
전체	7,401	5,401	87	1,169	624
2021년	298	191	3	77	15
2020년	305	183	4	63	24
2019년	300	224	4	69	20
2018년	323	225	9	65	20
2017년 이전(2017년 포함)	6,175	4,578	67	895	545

주: 해당 수치는 '건수'로 각 연도의 임신경험과 해당 연도의 임신결과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C2.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N=2,913)

- ① 있다 (15.3%)
- ② 없다 (84.7%)

4. 인공임신중절(낙태) 고려 경험

※ 아래 문항들은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지만 고려해 본 적이 있었던 임신'을 회상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만약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고려했던 임신이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D1. 귀하가 인공임신중절을 고민했을 때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N=447)
 만 _____ 세 (평균: 29.8세, 최소값: 15세, 최대값: 48세, 표준편차: 5.93)

D2. 그때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했습니까? (N=447)

① 미혼	(32.7%)	② 법률혼	(55.5%)
③ 사실혼/동거	(10.3%)	④ 별거/이혼/사별	(1.6%)

D3. 귀하가 해당 임신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N=447)

(1) 스스로 임신을 알게 된 시기 (임신테스트기, 월경주기, 몸의 변화 등)	임신 ___주차 (81.4%) (N=364, 평균: 5.7주, 최소값: 4주, 최대값: 20주, 표준편차: 2.94)	Ⓞ 모르겠음 (18.6%)
(2) 병원에서 정확하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기	임신 ___주차 (89.5%) (N=400, 평균: 6.4주, 최소값: 2주, 최대값: 32주, 표준편차: 3.56)	Ⓞ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았음 (10.5%)

D4. 귀하와 상대방은 그때 피임을 하였습니까? (N=447)

① 질외사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하였다	(40.5%)
② 질외사정, 월경주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콘돔, 자궁 내 장치 등)으로 피임하였다	(11.6%)
③ 사전 혹은 관계 시 피임하지 않았고, 응급피임약을 복용하였다	(1.8%)
④ 사전, 관계 시, 사후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았다	(46.1%)

D4-1.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447 / 복수응답, 모두 선택)

① 임신을 원해서	(25.2%)
②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7.0%)
③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0.3%)
④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3.1%)
⑤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5.4%)
⑥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41.6%)
⑦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서	(3.3%)
⑧ 피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해서	(6.1%)
⑨ 피임 시술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1.4%)
⑩ 기타	(-)

D5. 귀하는 임신 사실에 대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에게 알렸습니까? (N=447)

① 예	(97.3%)	② 아니오	(2.7%)
-----	---------	-------	--------

D5-1.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N=435)

① 아이를 낳자고 했다	(59.1%)
②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자고 했다	(7.6%)
③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31.0%)
④ 본인(파트너)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1.4%)
⑤ 파트너가 아무런 의견 없이 연락을 끊었다	(0.7%)
⑥ 기타	(0.2%)

D6.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누구)를 통해 얻었습니까? 다음 중 정보를 얻은 주된 곳(사람) 2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447 / 우선순위별 2개 복수응답)

①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10.3%)
② 부모님(본인 또는 상대방)	(4.0%)
③ 형제자매 및 친인척	(6.5%)
④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40.9%)
⑤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기관)	(3.1%)
⑥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28.2%)
⑦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	(62.6%)
⑧ 기타	(0.7%)
⑨ 없다 /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다	(8.5%)

D7.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의 정보나 상담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N=447)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필요한 편이었다	매우 필요했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6.3%)	(14.5%)	(51.2%)	(28.0%)
(2)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드는 비용 정보	(6.0%)	(12.3%)	(50.3%)	(31.3%)
(3)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법률정보	(7.2%)	(16.6%)	(45.6%)	(30.6%)
(4)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7.2%)	(11.0%)	(44.3%)	(37.6%)
(5)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7.6%)	(15.2%)	(44.1%)	(33.1%)
(6)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6.5%)	(15.4%)	(41.2%)	(36.9%)

D8.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2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447 / 우선순위별 2개 복수응답)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12.1%)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2.1%)
③ 임신 중 약물복용 때문에	(11.2%)
④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2.4%)
⑤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46.8%)
⑥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5.1%)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4.0%)
⑧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혼외관계 등)	(15.4%)
⑨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라고 해서	(3.8%)
⑩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1.3%)
⑪ 기타	(-)

D9. 귀하가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주된 이유 2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447 / 우선순위별 2개 복수응답)

- ①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부작용, 향후 임신에 부정적 영향 등) (16.1%)
- ②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63.3%)
- ③ 인공임신중절(낙태) 비용 마련이 어려워서 (2.5%)
- ④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3.1%)
- ⑤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등) (41.8%)
- ⑥ 인공임신중절(낙태)이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4.9%)
- ⑦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4.0%)
- ⑧ 인공임신중절(낙태) 자체가 무서워서 (11.0%)
- ⑨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서 (3.8%)
- ⑩ 사산·유산이 되어서 (11.0%)
- ⑪ 기타 (-)

5.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 아래 문항들은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였을 때'를 회상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만약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두 번 이상 하였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E1. 귀하가 가장 최근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때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N=606)

만 _____ 세 (평균: 28.5세, 최소값: 15세, 최대값: 49세, 표준편차: 5.99)

E2. 그 당시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했습니까? (N=606)

- ① 미혼 (50.8%)
- ② 법률혼 (39.9%)
- ③ 사실혼/동거 (7.9%)
- ④ 별거/이혼/사별 (1.3%)

E3. 귀하가 해당 임신을 알게 된 때와 정확한 임신 주수를 알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N=606)

(1) 스스로 임신을 알게 된 시기 (임신테스트기, 월경주기, 몸의 변화 등)	임신 ___주차 (80.2%) (N=486, 평균: 5.4주, 최소값: 4주, 최대값: 20주, 표준편차: 2.29)	○ 모르겠음 (19.8%)
(2) 병원에서 정확하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기	임신 ___주차 (89.4%) (N=542, 평균: 5.8주, 최소값: 4주, 최대값: 27주, 표준편차: 2.66)	○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았음 (10.6%)

E4. 귀하와 상대방은 그때 피임을 하였습니까? (N=606)

- ①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하였다 (41.3%)
- ②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콘돔, 자궁 내 장치 등)으로 피임하였다 (10.7%)
- ③ 사전 혹은 관계 시 피임하지 않았고, 응급피임약을 복용하였다 (1.8%)
- ④ 사전, 관계 시, 사후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았다 (46.2%)

E4-1.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291 / 복수응답)

- ① 임신을 원해서 (13.4%)
- ②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8.2%)
- ③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0%)
- ④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5.1%)
- ⑤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20.6%)
- ⑥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49.5%)
- ⑦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서 (2.7%)
- ⑧ 피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해서 (10.7%)
- ⑨ 피임 시술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1.7%)
- ⑩ 기타 (0.3%)

E5. 귀하는 임신 사실에 대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에게 알렸습니까? (N=606)

- ① 예 (96.5%)
- ② 아니오 (3.5%)

E5-1.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N=585)

- ① 아이를 낳자고 했다 (18.5%)
- ②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자고 했다 (27.5%)
- ③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50.3%)
- ④ 본인(파트너)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1.7%)
- ⑤ 파트너가 아무런 의견 없이 연락을 끊었다 (1.5%)
- ⑥ 기타 (0.3%)

E6. 귀하를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누구)를 통해 얻었습니까? 다음 중 정보를 얻은 주된 곳(사람) 2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606 / 우선순위별 2개 복수응답)

- ①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19.0%)
- ② 부모님(본인 또는 상대방) (5.0%)
- ③ 형제자매 및 친인척 (5.6%)
- ④ 친구 및 지인(선호배, 직장동료 등) (34.0%)
- ⑤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기관) (1.2%)
- ⑥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40.3%)
- ⑦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 (46.9%)
- ⑧ 기타 (0.2%)
- ⑨ 없다 /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다 (5.9%)

E7.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의 정보나 상담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N=606)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필요한 편이었다	매우 필요했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5.9%)	(7.9%)	(40.1%)	(46.0%)
(2)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드는 비용 정보	(4.3%)	(9.6%)	(38.9%)	(47.2%)
(3)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법률정보	(5.4%)	(17.0%)	(43.2%)	(34.3%)
(4)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3.8%)	(9.4%)	(43.9%)	(42.9%)
(5)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4.8%)	(16.7%)	(40.4%)	(38.1%)
(6)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10.1%)	(23.4%)	(36.6%)	(29.9%)

E8.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N=606)

- ① 있다(임신____주차) (N=394, 평균: 6.3주, 최소값: 4주, 최대값: 29주, 표준편차: 3.33) (65.0%) ② 없다 (35.0%)

E8-1. 상담 후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N=394)

- ① 1일(상담 당일 결정) (35.5%)
 ② 2일 (7.6%)
 ③ 3일 이상 - 1주일 미만 (35.8%)
 ④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17.8%)
 ⑤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3.0%)
 ⑥ 1개월 이상 (0.3%)

E9.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주된 이유 2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606 / 복수응답)

-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12.5%)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8.1%)
 ③ 임신 중 약물복용 때문에 (10.9%)
 ④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5.5%)
 ⑤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29.0%)
 ⑥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4.0%)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9.6%)
 ⑧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혼외관계 등) (21.6%)
 ⑨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라고 해서 (7.4%)
 ⑩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1.3%)
 ⑪ 기타 (-)

E10.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N=606)

- 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약)이나 유사약을 복용하였다 (2.3%)
 ②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약)이나 유사약 복용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이 되지 않아 병·의원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였다 (5.4%)
 ③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약)이나 유사약을 복용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 (92.2%)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약)이나 유사약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는 경우

E11.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을 복용했을 때, 임신 몇 주차였습니까? (N=47)

임신_____주차 (※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

(평균: 6.1주, 최소값: 4주, 최대값: 14주, 표준편차: 2.43)

E12.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대신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47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동의 없이 가능해서 (12.8%)
 ② 병의원에 가지 않고도 인공임신중절 약물을 구할 수 있어서 (14.9%)
 ③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받는 것이 두려워서 (21.3%)
 ④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서 (31.9%)
 ⑤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17.0%)
 ⑥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부작용이 덜할 것 같아서) (36.2%)
 ⑦ 기타 (4.3%)

E13.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였습니까? (N=47)

- ①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76.6%)
 ② 내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 (6.4%)
 ③ 지인 또는 구매 대행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매 (14.9%)
 ④ 해외 NGO 등 국제단체(Women on Waves 등)에 요청해서 (2.1%)
 ⑤ 기타 (-)

E14.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을 복용했을 때 다음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N=47)

문항	잘 몰랐다	알고 있었다
(1) 약의 복용(삼입) 방법	(74.5%)	(25.5%)
(2) 약의 임신 주수에 따른 인공임신중절(낙태) 효과	(66.0%)	(34.0%)
(3) 약 복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후유증	(63.8%)	(36.2%)

E15.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 구입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N=47)

- ① 10만원 미만 (36.2%) ② 10-20만원 미만 (21.3%)
 ③ 20-30만원 미만 (10.6%) ④ 30-40만원 미만 (6.4%)
 ⑤ 40-50만원 미만 (10.6%) ⑥ 50만원 이상 (14.9%)

E16.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 구입에 지불한 비용은 귀하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까? (N=47)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부담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9%)	(-)	(-)	(-)	(8.5%)	(25.5%)	(8.5%)	(8.5%)	(12.8%)	(4.3%)	(17.0%)	

(평균: 5.8점, 최소값: 0점, 최대값: 10점, 표준편차: 3.14)

E17.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약물 복용 후 결과 확인이나 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까?

- ① 예 (59.6%) ② 아니오 (40.4%)

수술을 통한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

E18.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을 때, 임신 몇 주차였습니까? (N=592)

임신 _____ 주차 (※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

(평균: 6.7주, 최소값: 4주, 최대값: 30주, 표준편차: 3.45)

E18-1. 마지막 월경일 기준 10주 이후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89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기관을 못 찾아서 (10.1%)
- ②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및 가족과 의견을 조율하느라 (22.5%)
- ③ 처음에는 낳으려고 했으나 상황이 변해서 고민하다가 (24.7%)
- ④ 수술 비용을 마련하느라 (14.6%)
- ⑤ 임신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 (41.6%)
- ⑥ 법적 처벌 때문에 고민하다가 (2.2%)
- ⑦ 적절한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을 알아보다가 (18.0%)
- ⑧ 다른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서 (1.1%)
- ⑨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기를 기다리느라 (10.1%)
- ⑩ 기타 (-)

E19. 귀하가 수술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592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수술로 하는 편이 확실할 것 같아서 (47.1%)
- ② 약물보다 수술을 통한 방법이 안전할 것 같아서(부작용이 덜할 것 같아서) (26.5%)
- ③ 수술로 하는 편이 회복이 빠를 것 같아서 (13.3%)
- ④ 약물로 인공임신중절 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지나서 (8.4%)
- ⑤ 약물로 하는 인공임신중절의 통증과 출혈이 두려워서 (2.2%)
- ⑥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배송 문제 등 포함) (4.4%)
- ⑦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34.3%)
- ⑧ 약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시도하였으나 잘 안돼서 (0.8%)
- ⑨ 기타 (3.4%)

E20.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몇 곳의 의료기관에 알아보았습니까?

(전화, 문자, 카톡, 방문 등을 통해 알아본 곳, 인공임신중절 수술 받은 곳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N=592)

총 _____ 곳 (평균: 1.54곳, 최소값: 1곳, 최대값: 10곳, 표준편차: 1.02)

E20-1. (2곳 이상 응답 시) 이 중 수술받은 곳을 포함해서 직접 방문한 의료기관은 총 몇 곳입니까? (N=213)

총 _____ 곳 (평균: 1.52곳, 최소값: 1곳, 최대값: 4곳, 표준편차: 0.63)

E21.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아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N=592)

- ①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35.0%)
- ②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이 불법이라고 거절당했다 (14.0%)
- ③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거절당했다 (1.4%)
- ④ 의료기관에서 갖추기 힘든 서류를 요구하였다(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함, 가해자 고소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함 등) (4.1%)
- ⑤ 기타 (0.3%)
- 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45.3%)

E22.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N=592)

- ① 주거지나 직장 근처 (69.8%)
- ② 주거지나 직장과 가까운 타 시/도 (19.3%)
- ③ 주거지나 직장과 먼 타 시/도 (10.1%)
- ④ 국외 (0.8%)

E23. 귀하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N=592)

※ 산부인과 전문병원: 내과, 소아과 등 일부 타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산부인과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
 ※ 일반 중소병원: 100병상 이하로 산부인과를 포함한 몇 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 ① 산부인과 개인병원(의원) (70.8%)
- ② 산부인과 전문병원 및 일반 중소병원 (25.3%)
- ③ 종합병원 (1.4%)
- ④ 조산원 (-)
- ⑤ 기타 (0.2%)
- ⑥ 잘 모르겠음 (2.4%)

E24. 귀하가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시설을 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N=592 / 복수응답, 모두 선택)

- 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51.2%)
- ② 비밀 유지가 잘 될 것 같아서 (14.2%)
- ③ 의료진 실력이 좋다고 들어서 (13.9%)
- ④ 여의사여서 (19.4%)
- ⑤ 비용이 저렴해서 (4.1%)
- ⑥ 거절하지 않은 곳여서 (36.8%)
- ⑦ 기타 (0.8%)

E25.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에 지불한 비용(중개 수수료, 영양제 주사 등 제반 비용 총합)은 얼마입니까? (N=592)

- | | |
|------------------------|------------------------|
| ① 30만 원 미만 (10.8%) | ② 30~40만 원 미만 (18.1%) |
| ③ 40~50만 원 미만 (18.1%) | ④ 50~60만 원 미만 (9.1%) |
| ⑤ 60~70만 원 미만 (6.3%) | ⑥ 70~80만 원 미만 (5.1%) |
| ⑦ 80~90만 원 미만 (3.2%) | ⑧ 90~100만 원 미만 (6.4%) |
| ⑨ 100~110만 원 미만 (3.4%) | ⑩ 110~120만 원 미만 (1.0%) |
| ⑪ 120~130만 원 미만 (0.8%) | ⑫ 130~140만 원 미만 (0.2%) |
| ⑬ 140~150만 원 미만 (0.7%) | ⑭ 150~200만 원 미만 (0.5%) |
| ⑮ 200만 원 이상 (0.8%) | ⑯ 잘 모르겠음 (15.5%) |

E26.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에 지불한 비용은 귀하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까? (N=592)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부담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3%)	(9.6%)	(12.0%)	(12.7%)	(1.9%)	(27.9%)	(7.1%)	(14.4%)	(10.1%)	(7.1%)	(18.9%)

(평균: 6.3점, 최소값: 0점, 최대값: 10점, 표준편차: 2.87)

E27.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곳에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N=592)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편이었다	매우 그랬다
(1) 임신주수 확인 및 인공임신중절(낙태) 가능성	(6.3%)	(11.3%)	(64.0%)	(18.4%)
(2)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방법과 절차	(7.3%)	(18.4%)	(56.3%)	(18.1%)
(3) 수술 전 준비(금식, 알레르기 확인 등)와 수술 후 주의사항(심한 복통, 출혈 시 조치 방법)	(8.4%)	(20.3%)	(52.4%)	(18.9%)
(4) 수술 후 불편 증상 및 후유증이나 합병증	(10.8%)	(24.8%)	(49.2%)	(15.2%)
(5) 수술 후 자가 관리 방법(사위, 성관계, 생리여부 등)	(8.3%)	(19.8%)	(53.5%)	(18.4%)
(6) 피임 종류나 방법, 임신 가능 시기 및 임신 전 관리	(16.0%)	(26.7%)	(43.4%)	(13.9%)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약물·수술 모두 응답)

E28.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까? (N=606)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9%)	(2.1%)	(6.1%)	(6.3%)	(6.9%)	(29.7%)	(8.4%)	(10.7%)	(9.1%)	(4.0%)	(8.7%)

(평균: 5.3점, 최소값: 0점, 최대값: 10점, 표준편차: 2.69)

E29.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이후 다음의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N=606)

문항	E29-1. 증상 경험		E29-2. 증상 치료 경험 (E21-1 경험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자궁전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	(7.1%)	(92.9%)	(48.8%)	(51.2%)
(2)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55.8%)	(44.2%)	(16.9%)	(83.1%)

E29-3. 신체적, 혹은 정신적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N=365)

- 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자연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46.7%)
- ②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12.1%)
-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4.6%)
- ④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9.3%)
- 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6.2%)
- ⑥ 치료받을 만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0.7%)
- ⑦ 기타 (0.3%)

E30. 인공임신중절(낙태) 후, 귀하의 피임 실천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N=606)

- ① 피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18.6%)
- ② 보다 적극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였다 (48.3%)
- ③ 상대방의 피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4.1%)
- ④ 변화가 없었다 (8.9%)

E31. 지금 귀하는 그 당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606)

- ①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59.4%)
- ②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다 (12.5%)
- ③ 잘 모르겠다 (28.1%)

6.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인식

F1.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형법의 낙태죄 조항(낙태시 여성과 의사를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하고 2020년 말까지 낙태죄를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N=8,500)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7.4%)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32.5%)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0%)
- ④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1%)

F2. 현재, 낙태죄 관련 현재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관련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귀하는 알고 있습니까? (N=8,500)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19.2%)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42.5%)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9%)
- ④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4%)

F3. 다음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와 '귀하 자신'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N=8,500)

문항	F2-1. 나 자신은				F2-2.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13.3%)	(15.7%)	(40.2%)	(30.8%)	(16.4%)	(36.4%)	(32.4%)	(14.8%)
(2)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56.2%)	(37.1%)	(5.6%)	(1.1%)	(25.4%)	(22.6%)	(32.5%)	(19.5%)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4.1%)	(9.6%)	(46.8%)	(39.5%)	(12.2%)	(37.1%)	(33.9%)	(16.7%)
(4)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9.2%)	(9.7%)	(32.6%)	(48.5%)	(49.9%)	(37.0%)	(10.8%)	(2.3%)
(5)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49.9%)	(37.0%)	(10.8%)	(2.3%)	(24.2%)	(29.3%)	(36.1%)	(10.4%)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10.5%)	(30.5%)	(55.4%)	(6.9%)	(26.9%)	(37.1%)	(29.1%)

F4.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전후에 다음의 상담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8,500)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0.6%)	(1.6%)	(32.4%)	(65.4%)
(2)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0.6%)	(2.0%)	(28.5%)	(69.0%)
(3)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0.6%)	(2.4%)	(27.6%)	(69.4%)

F5. 귀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8,500)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10.3%)	(10.4%)	(13.4%)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인식 제거	(2.4%)	(3.4%)	(5.1%)
③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21.5%)	(23.5%)	(17.1%)
④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13.0%)	(16.0%)	(16.3%)
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24.2%)	(15.0%)	(13.1%)
⑥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6.7%)	(9.3%)	(12.0%)
⑦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6.5%)	(8.0%)	(8.0%)
⑧ 인공임신중절(낙태) 후 휴가 보장	(1.4%)	(2.2%)	(2.5%)
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개선	(13.9%)	(12.2%)	(12.4%)
⑩ 기타	(0.1%)	(0.0%)	(0.0%)

F6.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한 지식, 정보 및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8,500)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임신 준비(영양, 식습관,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0.5%)	(2.6%)	(41.5%)	(55.5%)
(2) 피임 방법	(0.4%)	(2.7%)	(22.2%)	(74.8%)
(3) 난임(난임 원인, 치료방법 등)	(0.8%)	(3.7%)	(42.5%)	(53.0%)
(4) 분만 및 산전·산후 관리	(0.5%)	(2.0%)	(33.1%)	(64.4%)
(5) 월경, 환경(폐경)	(0.3%)	(3.2%)	(42.2%)	(54.4%)
(6) 생식계 질환 및 건강관리	(0.1%)	(1.4%)	(35.0%)	(63.5%)

붙임 4

2021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Ⅰ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규모
산부인과 의사	2021.12.1.~2021.12.15.	126명 완료

Ⅱ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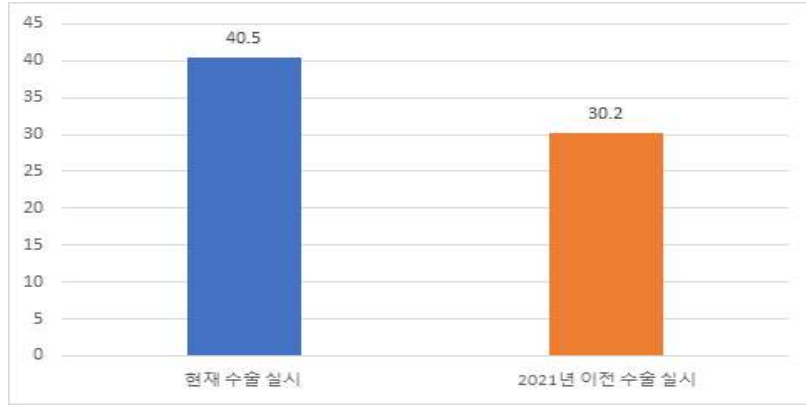
구분	비율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26)	전체	100.0	(126)
성별			의료기관 권역		
남성	41.3	(52)	서울	46.0	(58)
여성	58.7	(74)	경기	19.0	(24)
연령			부산/경남/울산/대구	11.1	(14)
30대 이하	28.6	(36)	광주/전라	10.3	(13)
40대	29.4	(37)	대전/충청	9.5	(12)
50대	30.2	(38)	제주/강원	4.0	(5)
60대 이상	11.9	(15)	의료기관 지역		
중시기관			동 지역	96.8	(122)
상급종합병원	20.6	(26)	읍면 지역	3.2	(4)
종합병원	19.0	(24)	해당분야 종사 기간		
병원	23.0	(29)	5년 이하	17.5	(22)
의원	37.3	(47)	6~10년	21.4	(27)
종교			11~15년	11.1	(14)
개신교	28.6	(36)	16~20년	19.8	(25)
불교	7.9	(10)	21~25년	11.1	(14)
천주교	19.0	(24)	26년 이상	19.0	(24)
무교	44.4	(56)	평균(표준편차)/범위	16.19(±10.05) / 1~4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③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여부 및 수술하지 않는 이유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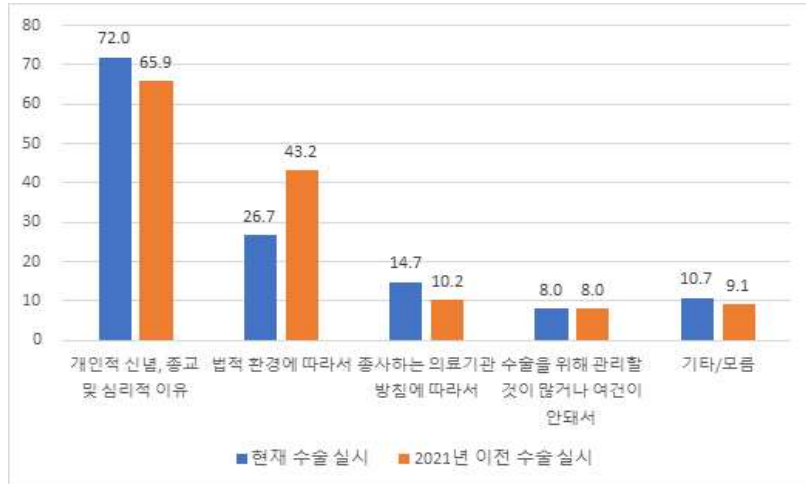


주: 응답자는 126명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않았던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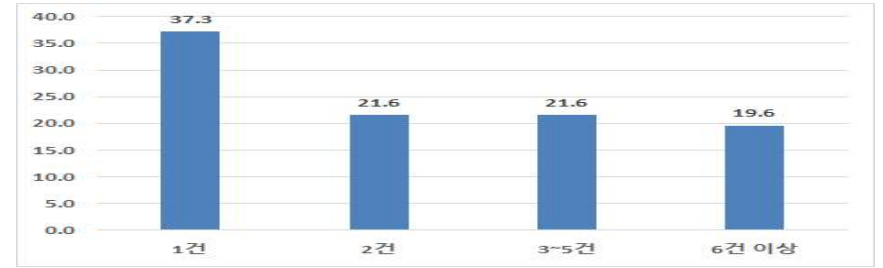
주: 1) 응답자는 2021년 이전은 88명, 2021년은 75명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던/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작성한 경우가 있어 합계가 100%를 초과함.

2) 기타: '해당 환자가 없어서', '사후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어도 수술할 다른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④ 인공임신중절 수술 및 약물 문의 빈도

<월평균 인공임신중절 수술 문의 건수> (2021년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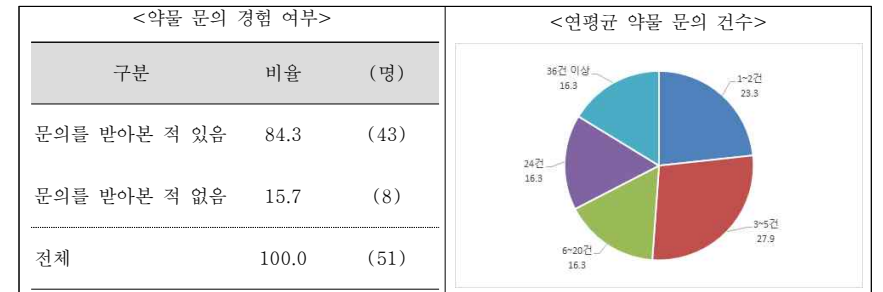
주: 1) 응답자는 51명임.

2) 1주 기준으로 문의 건수를 응답한 경우 1주 기준 문의 건수에 4를 곱하여 월평균 문의 건수를 산출하였음. 월평균 4.23건(표준편차 ±5.45건)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인공임신중절 약물 문의 여부 및 연평균 문의 건수> (2021년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

(단위: %, 명)



주: 연평균 약물 문의 건수는 16.56건(표준편차 ±23.06건)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인공임신중절 수술 및 약물 문의 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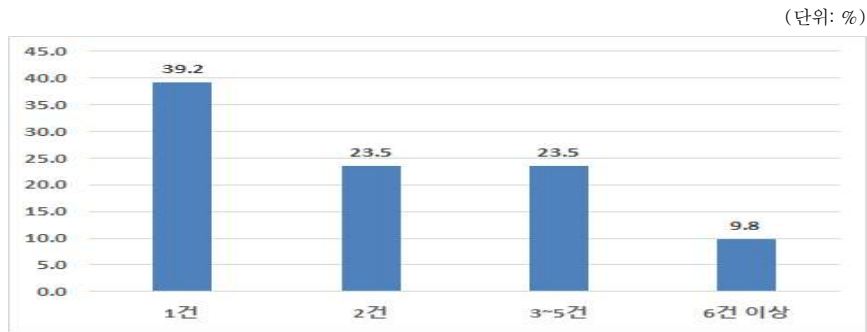
(단위: %, 명)

<수술 문의 건수 변화> (2020년과 2021년 모두 수술한 경우)			<약물 문의 건수 변화> (2020년과 2021년 모두 수술한 경우)		
구분	비율 (%)	(명)	구분	비율 (%)	(명)
감소하였음	41.4	(12)	감소하였음	31.0	(9)
변화 없음	44.8	(13)	변화 없음	41.4	(12)
증가하였음	10.3	(3)	증가하였음	20.7	(6)
모르겠음	3.4	(1)	모르겠음	6.9	(2)
전체	100.0	(29)	전체	100.0	(2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5 인공임신중절 수술 빈도 및 변화

〈월평균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2021년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



주: 1) 응답자는 51명임.

2) 1주 기준으로 수술 건수를 응답한 경우 1주 기준 수술 건수에 4를 곱하여 월평균 수술 건수를 산출하였으며, 월평균 4.84건(표준편차 ±7.64건)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변화〉 (2020년과 2021년 모두 수술한 경우)

구분	비율 (%)	(명)
감소하였음	37.9	(11)
변화 없음	44.8	(13)
증가하였음	6.9	(2)
모르겠음	10.3	(3)
전체	100.0	(2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6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적 환경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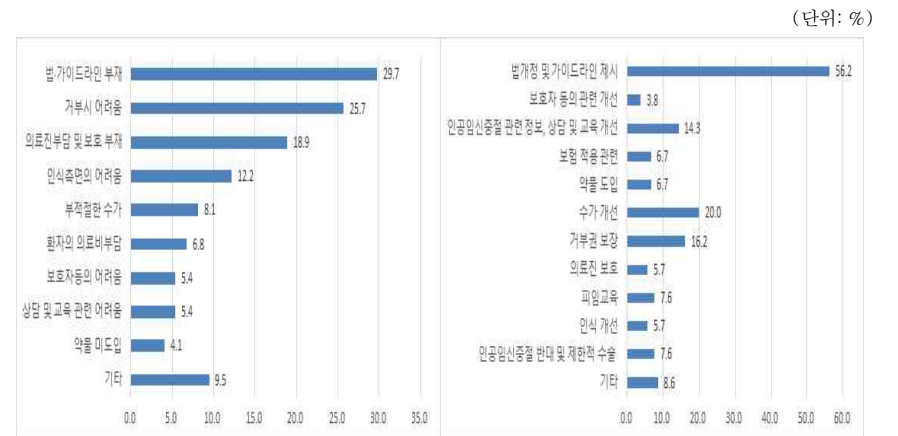
구분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 개정이 되지 않아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상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개정되지 않은 상태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 수가 신설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전혀 알지 못한다	0.8	(1)	6.3	(8)	23.8	(30)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13.5	(17)	21.4	(27)	32.5	(4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4	(56)	37.3	(47)	27.8	(35)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1.3	(52)	34.9	(44)	15.9	(20)
전체	100.0	(126)	100.0	(126)	100.0	(12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

7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인공임신중절 관련 어려움〉

〈인공임신중절 관련 개선사항〉



주: 1) 어려움에 대한 응답자는 74명,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자는 105명이며, 복수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2) 어려움 기타: '수술이나 생명을 쉽게 생각함', '수술 후 합병증 관리가 힘들', '질원 및 기형으로 수술을 원함' 등

3) 개선사항 기타: '지정 병원에서만 수술 가능', '환자의 사생활 보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수술 후 합병증 관리'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 원자료 분석.